

No.1 생활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을 꿈꾸는 신한PayFAN

신한카드는 국내 최대 규모인 2,700만 고객과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대표 신용카드사이다. 단순히 규모의 1등을 넘어 핵심역량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디지털회사로 성공적인 변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1위 카드사의 핵심역량에 디지털 신기술 결합을 통해, 하나의 앱으로 완결된 서비스와 고객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No.1 결제 플랫폼

신한PayFAN



Lead by 신한카드

가장 편리한 결제 서비스, 신한PayFAN

2018년 10월 오픈한 신한PayFAN은 앱카드 본연의 기능인 결제·금융에 집중하는 한편,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고객 맞춤 혜택을 강화해왔다. 금융권 최초로 ‘타임라인’ 서비스를 도입, 월 3억 건의 승인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개인소비관리(PEM)’를 도입하고 UX/UI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제뿐 아니라 개인화된 혜택, 고객 서비스(CS)까지 디지털 경험의 완결성을 향상시켰다.

신한PayFAN이 국내 최고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은 단순하다. 첫째로 ‘가장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한PayFAN은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중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결제를 지원한다. 2019년 금융사 최초로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 가까이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터치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도 간편 결제가 가능한 광범위한 결제환경을 구축하였다. 출시 2년 만에 ‘터치결제’ 이용자 55만 명, 이용금액 6천억 원을 돌파했다. 한편 2020년에는 아이폰으로도 터치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아이폰과 오프라인까지 지원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갖추기도 했다.

미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중심 플랫폼

신한PayFAN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월렛(Digital Wallet)’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20년 10월 론칭한 ‘마이월렛’은 신용, 체크, 선불, 계좌 등 모든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이체, 송금, 신분증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디지털 지갑이 향후 실물 지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5월에는 오픈뱅킹 기능과 디지털 자산까지 담을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신한카드는 신한PayFAN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고객의 생활 영역에서 종합금융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신한PayFAN은 마이데이터 기반 미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PayFAN Reboo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주)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PayFAN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앱카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한카드가 지향하는 최우선 가치는 ‘고객의 만족’입니다. 고객님이 소비하는 순간, 더 행복한 소비 경험을 드리고 나아가 돈 버는 소비의 진정한 가치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일등을 넘어 고객에게 진정한 일류로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